

2025년 경기예술지원 2차공모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및 원로예술활동지원
공연예술 분야 심의평

2025. 5. 20.

심의위원장 최영주

(서명)

심의위원 조형빈

(서명)

심의위원 박영희

(서명)

심의위원 박정용

(서명)

2025 경기예술지원 2차공모

【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

공연예술 분야 심의평

2025년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경기예술 생애 첫 예술 지원 공연 분야에는 총 224건이 접수되었고, 서류 심의를 통해 16건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 심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용 분야의 경우, 한국무용 분야의 지원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다원적인 작품들도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단순히 전통의 현대화라는 방법론적인 탐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과 창작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고무적이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대무용과 발레 장르의 지원이 적었지만, 전체적인 심사 과정에 있어 동시대적으로 관객들과 호흡할 수 있는 작품에 좋은 점수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장르의 구분을 넘어서 지금 우리 사회와 예술에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극 분야의 경우, 신진 예술가들의 다양한 관심사가 지원서에 반영되었으며, 예술 여정의 출발 시점에서의 지원자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여러 지원서를 통해 주류 연극에서는 시도하지 않던 창의적인 시도를 발견할 수 있었고, 지역 사회와 융화하여 소통하려는 의도 역시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료로 삼아 더 붙어 사는 방식으로 연극예술을 바라보는 방향성도 눈에 띄었습니다. 기존 희곡을 자료로 공연을 하기보다, 생활 속에서 이야기의 소재를 발견하고 그것을 화두로 삼아 연극을 실천의 통로로 삼는 태도에서 자못 기대가 큼니다.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아쉬울 뿐입니다.

음악 분야는 작곡과 성악, 대중음악과 전통음악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자연스럽게 고르게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으로 신청했지만 동료 예술가들과 함께 작업하는 형태가 보편화되어 여러 형태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기록과 결과를 남겨 이후에도 다른 예술가들이 자극받고 참고할 수 있는 창작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기획적인 측면에서는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산 책정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완성된 작품에 대한 기대가 큰 경우를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예술가들이 동시대적인 감각과 자신만의 언어로 예술적 실험을 시도하고자 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한된 예산과 지원 규모로 인해 아쉬움이 남지만, 선정된 작품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창작 여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2025 경기예술지원 2차공모

【 원로 예술활동 지원 】 공연예술 분야 심의평

2025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원로 예술활동 지원 공연 분야에는 14건이 접수되어 서류 심의를 통해 5건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 심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용 분야의 경우, 사업의 취지에 맞게 오랜 경험을 통해 탄탄히 다져진 기획서들이 여럿 보여 원로 예술인 선생님들의 의지와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좋은 작업을 선발함에 있어 기획서의 구체성과 새로움에 비중을 두고자 했습니다. 오랜 시간 다져온 예술적 노련함이 동시대성과 맞닿아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극 분야의 경우, 오랜 세월 쌓아온 경력이 삶의 궤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축적된 연극적 기량 또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편으로 원로 예술인을 주축으로 그룹이 형성된 듯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소재와 접근 방식의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음악 분야의 경우, 원로 예술인들의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몇몇 기획안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꼭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이 원로 예술인들의 활동 무대를 더욱 넓히고, 예술 창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공연기획적인 측면에서는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방향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여부를 중심에 두고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후배 예술가들에게 영감과 예술적 경험을 전할 수 있는 기획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원로 예술인들의 창작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 확대와 더불어 분야별 특성을 더욱 세분화한 심의 체계가 마련된다면, 예술성과 다양성 모두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원로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응원하며, 이들의 오랜 예술적 여정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5.5.20.

심의위원

최영주 (연극평론가)

박정용 (라이브클럽협동조합장, 벨로주 대표)

조형빈 (에디토리얼 콜렉티브 널 편집장)

박용휘 (티씨랩 대표, 천하제일탈공작소 PD)